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9, No. 5, pp. 1467-1478, 2008

보양온천을 활용한 온천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주일[1*], 양해술[2*]

A study on the Prosperity of Hot Spring Industry using Healthy Hot Spring

Ju-il Lee[1*] and Hae-Sool Yang[2*]

요 약 본 논문은 위기에 빠진 국내 온천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회생책을 찾고 더불어 범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과 여가활용, 사회노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양관광 온천지역 조성을 제시한다. 저자는 또한 여행자들을 위한 최고의 보양온천 장소로 아산온천지역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아산온천지역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아산온천지역의 온천자원개발을 통해서 더욱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고,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suggest a concrete way about imperiled domestic hot spring tourism and then provide some ideas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public health promotion, aging society. In this paper, the author proposes the healthy tourism formation to solve such above problems. The author also proposes Asan Hot spring areas as the most healthy places for tourists.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s that Asan Hot Spring Areas will contrib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There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nation's image and produce much more benefits by hot spring resources develop of the A-San springs area.

Key Words : Hot Spring, Health Tour, Kurhaus, SPA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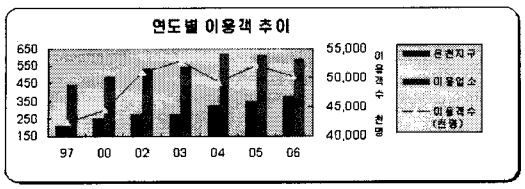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노령화 사회의 급진전, 환경오염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으로 인한 만성질환 환자의 폭증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여가활용과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증진과 심신요양 및 지역경제·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온천의 보건적 효능을 중점으로 한 보양온천의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양과 휴양, 레크레이션, 건강유지 등을 위한 보양온천 리조트의 활성화에 대한 동기가 증폭하고 있으며, 이것은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면서 질병도 치료하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려는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국내 온천지는 역사가 비교적 오래되어 노후화되었거나 고도 성장기 단체형 관광 수요를 목적으로 무질서하고 비대하게 건설되어 대형 사우나, 찜질방, 워터파크 등 온천을 대체하는 대형시설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관광 수요 감소나 채산성 위기 등으로 심각한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추상적인 온천 발전방안이 난립했을 뿐, 이를 타계할 만한 구체적인 발전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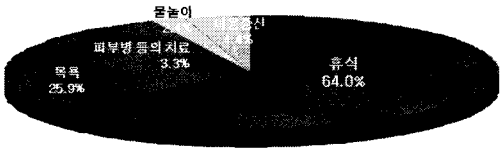
국내 온천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이용객 수는 1997년 이후 증가하다가 2003년 5,3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서 2006년에는 5,000만명으로 300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천개발의 실태만을 보더라도 무계획적·과열경쟁으로 인한 온천자원의 고갈과 지하수 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1]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정보경영학과(박사과정)
*교신저자: 이주일(idh1331hanmail.net)
[2]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컴퓨터응용기술학과(교수)
접수일 08년 10월 02일 수정일 08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08년 10월 16일



[그림 1] 온천 연도별 이용객 추이
자료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성인(20~70세) 중 온천이용 경험자 2,101명을 대상으로 온천이용 국민만족조사를 실시한 온천을 이용하는 목적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온천 이용 목적
자료 : 행정안전부

선진국의 사례와 달리 대다수 국민들은 휴양의 목적으로 온천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온천성분이나 효능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며 온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심각할 정도로 팽배해 있다. 또한 온천의 원천수의 다양한 치료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치료개념조차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전 국민의 건강증진 관련 정책으로서 국민의 성인병 치료나 예방을 위한 자연치유의 수단으로서 온천을 보양온천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보양온천 내에서 일정기준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합법화시킴으로서 일반적인 사회보험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온천을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치료, 보양, 휴양, 요양의 요충지로 개발시켜왔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행정안전부는 의료계, 학계, 관광, 온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천발전전략회의를 3월중으로 본격 가동하여 보양온천의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거쳤고 2008년 6월 20일자로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입법을 예고하였으며, 온천 전문의제도 도입, 전문 치료시설 설치, 보양온천이용객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은 부대사업으로 보양온천과 목욕장, 관광숙박, 국제회의장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보양온천을 활용한 여러 가지 특성화 사업의 시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보양온천 육성에 대한 국가적인 적극적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온천도 온천 선진국가들의 제도와 모범사례를 한국적 실정에 맞춰 개발한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족 오락 및 휴양형 온천기능만이 아닌 보양온천으로서의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범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과 여가 활용, 사회 노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보양온천을 적극 활용한 보건관광단지 구성을 토대로 위기에 빠진 온천에 대한 구체적인 회생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보양온천의 근원적 개념을 시행하고 이러한 이론적 고찰에 의해 유럽 및 일본 등 온천 선진국가들의 보양온천이 어떠한 규정과 사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국내 최대 온천지구인 온양온천을 중심으로 보양온천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사회문제 해결, 수익창출이라는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보양온천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보양온천의 개념

2.1 국내 보양온천의 개념

일반적으로 보양온천이란 온천의 수온과 성분이 우수하고 시설과 주변환경 등이 뛰어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을 말한다. 또한 온천욕장, 찜질방, 노천탕 등 일반 온천시설 외에 의료 및 요양시설, 공원과 산책로까지 겸비한 휴양과 의료, 치료기능이 결합된 온천을 말하기도 한다[1].

온천의 의학적 기능은 예방의학 차원의 휴양과 보양기능, 치료의학 차원의 요양과 리허빌리테이션(rehabilitat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휴양이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피로나 과로를 단기간에 제거하는 것이고, 보양이란 장기간을 통해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요양이란 주로 만성질환의 치료나 건강회복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는 것이고, 리허빌리테이션이란 병이나 수술 등으로 저하된 신체 기능을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기능이다. 보양온천은 관광·레저위주의 온천문화에 이와 같은 기능들을 보강한 것이다. 온천수의 온도·성분·이용시설·환경조건 등이 일반 단순온천과 차별화된 온천으로 실버 관련시설 및 종합레저타운, 기타 의학적 이용이 연계된 복합온천단지로 조성되어지고 있다. 온천수의 성분 및 성분에 따른 효능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온천수 성분 및 성분에 따른 효능

온천분류명	온천수 성분	효능
단순천	온천수 1kg 속에 함유성분(총고용물량)이 0.8g 미만인 온천으로, 무색, 투명, 무미, 무취하다	피부 혈행 촉진, 신경통, 류마치스, 신경마비
단순탄산천 (CO2)	온천수 1kg 속에 유리탄산이 1g 이상 함유한 온천으로, 입욕하면 피부에 기포가 달라붙는다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신경통, 위장병(음용)
수소탄산천 (HCO3) (수소탄산칼슘천) (수소탄산나트륨천)	온천수 1kg 중 고형성분이 1g 이상 함유하고 음이온으로서 탄산수소이온, 양이온으로서 칼슘 이온, 마그네슘이온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다. 대개 다량의 탄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수소탄산 토류천이라고도 한다. 소수탄산칼슘천(ca-hco3)이나 수소탄산마그네슘천(mg-hco3)이 많음	위산과다, 신장염, 광염, 카타르, 질염, 결핵, 천식
수소탄산 나트륨천 (중조천) (Na-HCO3)	온천수 1kg 중에 수소탄산나트륨(중조)이 340mg 이상 함유하고 있으며 끓이면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만성피부병, 호흡기질환, (기관지염), 당뇨병, 약물중독, 소화기질환 (위산과다)
염화물천 (염화나트륨천 Na-Cl) (염화칼슘천 Ca-Cl) (염화마그네슘천 Mg-Cl)	식염분이 많은 광천으로 함유성분이 온천수 1kg 중에 1g 이상 포함되며, 음이온의 주성분이 염소이온이다. 양이온의 주성분에 의해 나트륨 염화물천(식염천)(Na-Cl), 칼슘염화물천(Ca-Cl) , 마그네슘염화물천(Mg-Cl)으로 나눈다. 온천수 1kg 중 소금(염화나트륨)의 함유량이 15g이상은 강식염천, 5g 이상은 약식염천으로 분류한다	류마치스, 신경통, 창상요통, 근육통, 외상후유증 [음용: 만성위장염, 만성변비]
황상염천 (SO4) (황산나트륨천) (황산칼륨천) (황산마그네슘천)	온천수 1kg 중 함유성분이 1g 이상으로 주요 음이온의 주성분은 황산이온이다. 양이온과의 조성에 따라 망조천(주로 황산나트륨), 석고천 (주로 황산칼슘), 정고미천(주로 황산마그네슘) 등으로 난누고, 약간 쓴맛이 나는 것이 특징으로 무색투명이나 간혹 황색을 띠는 것도 있다. 동물이 뜨거운 물로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전설이 있는 온천이 많다	류마치스, 신경통, 창상, 소화기질환 등
철천(Fe^{2})	온천수 1kg 중에 제1철이온(Fe^{2+}), 제2철이온 (Fe^{3+})이 0.01g 이상인 온천으로, 조성된 음이온에 따라 탄산수소이온이 많으면 탄산철천, 황산이온이 많으면 황산철천, 염소이온이 많으면 염화철천으로 나누어진다. 이 온천수는 공기에 접하면 산화해서 갈색의 침전이 생기고 적갈색 혹은 다갈색의 탁해진 온천수로 변한다	류마치스, 신장염, 신경쇠약, 만성습진 [음용 : 빈혈]
명반천 (함알미늄천)	온천수 1kg 중 함유성분이 1g 이상 함유하며 음이온으로 황산이온, 양이온으로는 알루미늄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다	수족의 다한증, 류마치스, 신경통, 부인병
유황천 (황화수소천) (H2S)	온천수 1kg 중 1mg 이상 함유된 온천으로 온천수는 흰빛을 띠고 효려지며 삶은 달걀 썩는 냄새가 특이하다. 단순유황천과 황화수초천의 2종류로 나누기도 한다	만성피부염, 천식, 습진, 부인병, 만성기관지, 만성류마치스 등
산성천	유리된 산류(황산, 염산, 규산, 붕산 등)를 다량 함유하여 산성을 띠는 온천으로, 화산지역에서 용출하는 곳에 많다. 보통 수소이온이 온천수 1kg 중 1mg 이상인 것을 말한다. 수소이온농도 (ph)에 의하여 '강한 산성천'(ph2 이하), 좁은 뜻의 '산성천'(ph2~4), '약한 산성천'(ph4~5)이 있다. 살균력이 강하며, 맛은 시고, 비누가 잘 풀리지 않고, 강한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독수(毒水)라고도 한다	피부병(특히 무좀), 지나친 입욕은 해롭다
방사능천 (라돈천, 라듐천) (Rn, Ra)	온천수 1kg중 라돈 8.25mache(100억분의 30Ci) 이상이거나 라듐 1억분의 1mg 이상인 온천으로 수온이 그다지 높지 않다	혈압저하, 좌골신경통, 통풍, 당뇨병, 노이로제, 순화기 장애개선

보양온천은 일본에 이미 1954년에 도입돼 전국적으로 91곳이 운영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보양온천이라는 명목으로 몇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위와 같은 기능을 모두 구현하는 궁극적 의미의 보양온천은 올해 첫 선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보양온천은 해당지역 시·군·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된다. 보양온천은 일반 온천과는 차별화된 보양온천표시(그림 3)를 의무화하며 세제완화, 관광기금 활용, 공공시설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림 3] 보양온천표시
자료 :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8조 관련

[표 2] 보양온천시설 기준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지정기준	지정조건	비고
온천수	온도	온도	용출온도 35℃ 이상		각소항목 중 1항목 해당
	성분	총고용물	용출온도 25℃ 이상 총고용물함량 1000mg/ℓ 이상		
		유황	용출온도		

[표 3] 보양온천지구 기준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지정기준	지정조건	비고
보양온천지구시설	시설	종합보양온천관(Kuhaus) 총연면적 2,000㎡ 이상 (절대조건)	1. 건강상담실 겸응급조치실 2. 운동욕장 (5가지기능) *보행욕 *바디마사지 *넥샤워 *플로팅 *릴렉스라이닝 3. 운동실 4.릴렉스 존 5. 수영장 7. 프론트로비 8. 온천욕장 9. 사우나실 10. 찜질방 11. 노천탕 12. 다목적홀	*1급 응급구조사 상주 * 욕조바닥면적 200㎡ 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5종이상 운동기구 *수면실 외 교류장소 *길이 25m 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고온탕, 온탕, 냉탕 등 욕조바닥면적 50㎡ 이상 *건식, 습식	절대조건
		부대시설	1. 이용시설 상담 등 안내소 2..의료시설 3.요양시설 4.숙박시설 5.식당 6.주차장 7.소운동장 8.공원 및 산책로	*영양사상주	절대조건
보양온천지구환경	주변환경	필수사항	1. 야외공기청정도 2. 실내공기청정도 3.실내소음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환경기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별표8] 생활소음·진동의규제기준	절대조건
		권장사항	1.경관이 수려 2.녹지(공원) 등이 잘 정비 3.지구내 위생처리 상태가 양호 4. 양호한 환경보호 상태 5.상수도 시설상태 6.교통 및 주차장의 편리 7.재해에 대한 안전도 8.보도 확보 및 정비상태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4분류하여 100※중 60※이상

자료 :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25℃ 이상 총유황(H2O, S2O3, HS⁻) 합량1㎎ 이상		
		유리탄산	용출온도 25℃ 이상 유리탄산 250㎎/ℓ 이상		
	수량	이용허가수량	1일 최대이용인원(840인)을 수용할 수 있는 수량	*최소 210㎡/일 이상 *운동욕장 50㎡/일 이상 * 온천욕장 160㎡/일 이상	절대조건
보양온천시설	시설	건강시설 (총연면적 1000㎡이상	1. 응급조치실 2. 운동욕장 (5가지기능) *보행욕 *바디마사지 *넥샤워 *플로팅 *릴렉스라이닝 3. 운동실 4. 릴렉스존	*2급 응급구조사 상주 *욕조바닥 면적 100㎡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5종이상 운동기구 *수면실 외 교류장소	절대조건
		기본시설	1.프론트로비 2..탈의실 3.온천욕장 4..사우나실 5.찜질방 6.노천탕 7.다목적홀	*고온탕, 온탕, 냉탕 등 욕조바닥면적 50㎡ 이상 *건식, 습식	
보양온천환경	주변환경	필수사항	1.실내공기청정도 2. 실내소음도 3.의료시설과 제휴관계가 및 있을 것 4.숙박시설 및 식당 보유 또는 근접거리 (1,000m 이내)에 이용 가능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4분류하여 100※중 60※이상
		권장사항	1.경관이 수려 2.녹지(공원) 등이 잘 정비 3.지구내 위생처리 상태가 양호 4. 양호한 환경보호 상태 5.상수도 시설상태 6.교통 및 주차장의 편리 7.재해에 대한 안전도 8.보도 확보 및 정비상태		

자료 :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의 표 2.보양온천시설과 표 3.보양온천지구 기준표를 보면 국내에서 온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25℃ 이상이었던 데 반해, 온천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수온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성분과 이에 따른 효능이라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다양한 기준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온천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설치기반의 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 보양온천은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온천의 공익성과 함께 기존 온천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2 외국의 보양온천

2.2.1 보양온천의 역사

일찍이 온천을 치료의 개념으로 인식해 온 유럽에서 보양온천의 역사는 곧 온천의 역사와 일맥상통한다.

근세 온천장의 탄생은 중세시대 종교상의 성지순례라는 오랜 관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지순례의 목적은 외면적으로는 면죄와 기복을 위한 것이었지만, 중세인들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던 유흥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일종의 휴식을 가능케 하는 기제였다. 영국의 종교개혁에 의해 이 관습이 금지되자 순례를 통해 떠났던 휴양이라는 전통은 합법적 틀을 제공할 대안을 찾게 되었다. 사람들은 구제와 희망이라는 기능을 제공해 줄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던 중 과거의 순례라는 관습과 같은 합법적 구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순례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순례지를 대치하여 나타난 것이 온천장으로서 과거 성천(聖泉)이었던 곳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기존의 신성에 호소하던 순례를 과학에 기반을 둔 수치료(水治療)를 받기 위해 온천에 가는 형태로 변형된 것이다.

16세기 중반부터 내과의사와 화학자 등 당시의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물의 화학적 성분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물에 관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전반적으로 이 논문들에서는 물을 크게 '단순한 물'과 '광천수(鑛泉水)'라는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 기준을 물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실용성에 근거를 두었다.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물은 그 자체로서 귀중한 의약재라는 인식을 가능케 하였다.

영국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터너는 수치료법의 실체를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배스(Bath)의 온천수가 무려 88가지 주요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광천수의 치유력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몰려든 사람들은 몸을 담그는 욕탕의 물을 떠 마시기까지 하였다. 이는 위생적인 온천시설의 필요성을 야기시켰고 뜨거운 온천수에 이용자들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생기게 되자 의사들은 온천수를 바르게 사용하는 안전한 방법을 고안하고 계몽하기에 이른다.

종교개혁 이후 영국에서 온천이 급속히 발달하게 되면서 온천의 상업화도 병행되었는데 이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이들은 바로 의료인들이었다. 과거 성천의 물과 달리 온천수는 상업화과정에서 반드시 판매되고 구매되어져야 하는 상품이 되어갔다. 또한 광천수의 의학적 효용은 그에 수반되는 의료서비스라는 영역을 상품화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치료법은 당시 독보적 첨단 의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온천장은 의료인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개발로 세속화, 상업화가 가속화되었으며 과거의 순례지였던 성천이 근대적이고 합법적인 휴양지로 탈바꿈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16~17세기 광천수는 온갖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온천장은 명목상 건강을 위한 요양소로서 피서를 떠나는 귀족들에게 최적의 장소로 떠올랐다. 광천수와 자연 친밀적인 환경이라는 전제 이외에 온천장이 최적의 여름 피서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온천장이 제공하던 다양한 오락과 여흥 때문이었다. 상류층은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온천장에서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오락거리를 찾게 됨은 물론 함께 즐길 수 있는 같은 계층의 사람들과 친밀함을 나누게 되었다.

이처럼 온천장은 18세기 이전에 이미 유럽에서 확고한 레저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온천장이 탄생한 배경에는 중세 순례라는 관습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해 온 여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수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풍습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중요한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 역사를 품고 있었다.

2.2.2 독일과 일본의 보양온천

18세기 이전부터 이미 유럽에서 확고한 레저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온천장은 18세기 이후 온천을 이용한 요양을 본격적으로 의학에 도입해서 산업화시키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으로 보양온천제도를 개발시켜온 유럽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벨기에, 체코, 헝가리, 러시아 등이다. 그 외에도 폴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보양온천지를 활용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양온천지 승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1973년도 FITEC(국제온천기후연합)의 국제적인 온천동맹에 의해 결정되었다. 회원동맹은 1973년 이래 이 기준에 적합하

지 않는 보양온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동맹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2].

[표 4] FITEC 보양온천시설 인정 기준

항 목	기 준
요양지역	특별히 조용하고 쾌적한 휴양 지역이어야 함
사회 기반구조	산업, 교통, 소음, 가스, 먼지 등과 같은 요소가 환경보호조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요양지의 건축	치료 회복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요양지 크기에 알맞은 건물이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교통시설	요양지 근처에서는 보행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일으키지 않는 교통시설 구조로 건설되어야 함
응급구조 체계	환자 수송, 전염성 질병의 퇴치 등 위생사항도 안전하게 보장 되어야 함
소속의사	거주 요양 의사(온천의)는 특별히 이 마을에서 치료되는 질병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함. 아울러 요양진행의 관리와 병증의 진단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 역시 갖추어야 함
숙 소	숙소는 위생적으로 완벽하고 살기 좋게 편안해야 함
급식	요양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반급식과 다이어트 급식을 포함한 요양에 알맞은 급식이 이루어져야 함
적응증 분야	치료 요양지는 적응증 분야를 가능한 한 치료제의 특성과 건립된 요양설비에 의해서 자세하게 국한시켜야 함

[표 5] 유럽 보양온천 인가시 시설기준

시설기준 관련	시설명	세부시설명		기타
보양온천 인가시설 기준	일반 시설	정적 레크레이션 시설	유보도가 있는 숲, 공원시설	국제온천기후연합
		동적 레크레이션 시설	유보도, 스포츠 및 게임	
		여가시설	각종 클럽, 독서실, 담화실, 집회실	
		사교시설	레스토랑, 카페, 극장, 영화관, 카지노	
		공동시설	쿠어밋텔하우스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워크숍, 창고, 기타	
	숙박 시설	병원, 요양소, 스파호텔 혹은 호텔		

① 독일

독일은 1826년에 육군광천병원을 설립, 온천의 이용이 시작되었고 1870년 보불전쟁 때 위리스 바덴온천의 월헤름병원에서 장병을 치료하였으며,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시에 더욱 확장되어 독일 각지에서 온천치료가 행해지게 되었으며, 현재는 135개소의 요양, 보양온천지를 가지고 있다[3].

독일의 보양온천은 온천수에 치료효과가 있는 성분이 없다면 보양온천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온천수 자체의 치료효과 외에도 입욕프로그램이나 운동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어[4] 목욕이나 운동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용객은 전문의로부터 자신의 증세에 맞는 치료법을 지도 받고 영양사로부터는 자신의 증세에 맞는 식단을 지도 받으며 심리학자로부터는 심리치료를 받는다.

보양온천지에서는 요양, 보양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저렴한 요금으로 장기체재가 가능하다. 온천세는 목적세로서 공공의 보양시설 정비에 사용된다. 보양온천지는 환경보전이 매우 잘 되어 있고, 온천지내에는 쿠어파크(보양공원)가 있고, 쿠어하우스(KUR HAUS), 음천장, 미니골프장, 정구장, 승마장, 풀장, 스케이트장 등과 콘서트장, 산택로가 정비되어 있으며, 박물관, 도서관 등 스포츠시설, 문화시설 등이 잘 정비되어 있다. 독일의 보양온천은 단순한 온천이라기보다는 건강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시설로서 자리 잡고 있다.

② 일본

일본은 유럽에 비해 풍부한 온천 자원을 바탕으로 주로 관광용으로 온천을 개발하였으나 1920년경부터 유럽의 온천개발상황을 서서히 도입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온천 개발상황은 근래 십여년간 극심한 변화를 겪었는데, 특히 보양온천으로의 변화는 1983년 (재)일본건강개발재단이 독일의 쿠어시스템을 도입하여 독자적 모델인 쿠어하우스를 개발한 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 개발된 쿠어하우스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다목적 온천보양관(KUR HAUS)이라고 부르고 동시에 독일의 온천 보양시설인 바덴바덴에 있는 쿠어하우스인 프리드리히 욕장의 이용방식을 골격으로 한 쿠어하우스 제도를 도입, 모방하여 발전시켜오고 있다. 쿠어하우스는 각종 욕조를 조합하여 구성한 건강조성영역에 다양한 종류의 탕을 구성하여 이용객의 요양 및 보양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입욕방식을 가미한 현대의 학으로서의 온천의학 등 생리학과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 일본식 쿠어하우스 제도는 유럽에 비해 풍부한 온천 자원의 특성을 잘 살려 원천수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요양법을 적용하며 일본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일본 각지에 산재하고 있다.

[표 6] 유럽과 일본의 보양온천 특징 비교

시설특성 분류	유 럽	일 본
온천시설 유형	보양온천	보양온천
온천 요법의 목적	요양, 보양	질병예방, 건강지키기
온천 방법의 특징	· 물을 이용한 적극적 치료 및 보양, 운동요법적용 등 · 의사진찰에 따른 치료	· 물속에 몸을 담그는 정적인 방법에서 점진적 치료 및 보양요법 도입 · 상담을 통한 건강증진 적용
시설 활성화 배경	· 성인병 대책 및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쾌적한 시설의 필요 욕구 · 온천수 치료효과의 의학적 증명	· 국민 건강증진 수단으로 전환 · 온천수 치료효과의 의학적 증명
프로그램 운영	· 치료프로그램 활성화	· 상담프로그램 활성화
공통 점	· 온천수에 기본적 성분기준을 만족시켜야 보양온천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보건관광(Health Tourism)

3.1 개요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건강과 균형 있는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지며 이에 따라 관광을 비롯한 레저 형태도 건강 지향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또한 그 동안의 레저 동향은 정치·경제 동향을 기반으로 의식주와 같은 생활문화의 양적·질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으나 미래의 레저활동은 건강문제를 배경으로 진행되어 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보건관광은 관광지 고유의 매력에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관광으로 정의된다.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쿠바, 태국, 필리핀, 중국 등지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건강증진산업과 연계하여 보건관광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있으며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특히 쿠바는 보건관광산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국가이미지 제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관광(Health Tourism)을 건강과 관광 동기를 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칭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한 것은 1996년 Eric에 의해서였으며 Heath Tourism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WTO의 전신인 International Union of Tourist Organizations(IUTO, 1973)에 의해서였다[5]. 최근 보건관광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관심은 그 대부분이 지역의 관광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마케팅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보건관광의 개념은 특정한 관광목적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으며 건강증진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관광프로그램, 서비스, 관광목적지를 포함하고 있다.

3.2 세계 주요 주요 보건관광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폴, 인도, 태국 등 몇몇 나라에서는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3.2.1 싱가폴의 메디칼 투어리즘

싱가폴의 래플즈 병원은 샴쌍둥이 분리수술로 유명하다. 래플즈 병원에서의 외국인 진료 서비스는 해마다 엄청난 매출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새로운 수익모델로 제시하면서, 330~1450 달러의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싱가폴 관광청과 연계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주변 국가들 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싱가폴 정부는 의료마케팅 부서까지 두면서 병원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위해 여권수속, 체류기간 연장, 비행기표 예약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관광을 위해 병원 직원들은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3.2.2 인도의 새로운 관광 포지셔닝 전략

인도의 The Golden Palms Spa and Resort는 "Life Enhancement Center"를 표방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헬스 리조트로 리포지셔닝 하고 있다. 리조트 회원들에게는 각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네 종류의 헬스 플랜이 제공되며, 이러한 헬스 플랜은 자연요법, 다이어트, 스트레스 관리, 비만관리, 명상 등 다양한 요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휴가를 이용하여 신체적 변화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성형이나 모발이식 등의 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3.2.3 태국의 메디칼 투어리즘

태국 방콕의 범룽랏(Bumrungrad) 병원은 태국 의료관광의 선두주자로, 14개 언어로 도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로드쇼뿐만 아니라 진료와 유수 휴양지 여행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2003년 30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으며 해마다 새 외국인 환자수의 증대를 보이고 있다. 태국의 의료관광 수입은 해마다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

으며 태국 관광객의 40%를 의료서비스 고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태국정부는 관광과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관광을 새롭게 떠오르는 주요 국가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이 밖의 현재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주요 보건관광사업 현황은 표7과 같다.

[표 7] 세계 주요 보건관광사업 현황

국가	사업현황
일본	· 온천요법, 건강마사지 요법 등 보건자원을 관광과 연계 · 도야마 국제건강센터, 일본 전통음식 연계
프랑스	· 치료와 요양 목적의 Health Resort 개발·운영 · 해변요양을 겸한 해수요법이 망슈, 지중해 해안, 코트 다주르 지역에서 발달
이스라엘	· 바닷가 요양과 진흙(머드)욕을 통해 보건과 관광연계
쿠바	· 정상급 의료진과 첨단의학장비를 갖춘 보건관광사업 발달 · 미국 절반수준의 저렴한 비용의 의료관광 패키지상품을 개발하여 미국인을 대상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
중국	· 중의학을 중심으로 한방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운영 · 동인당, 북경대학 침술, 다양한 먹거리 연계
태국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저렴한 의료비, 최고급 숙박시설 등으로 외국 관광객 유치
싱가폴	· 민관협력업체인 싱가포르메디신을 설립하여 국가 주도로 사업 추진 중
남아공	· 저렴한 가격으로 성형수술과 사파리관광을 연계 운영 중으로 유럽과 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음

3.2.3 우리나라의 보건관광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양방의 경우 치과(임플란트, 스케일링), 성형외과(쌍커풀, 눈주름 수술, 모발이식 레이저수술), 피부과(피부관리, 보톡스 주입), 안과(라식수술, 백내장 수술), 한방의 경우 침, 뜸, 부황 등 한방시술과 비만 및 피부관리 등에 관심을 가지고 해외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해 외국인들에게 의료서비스와 함께 한국관광의 기회도 함께 제공하는 '헬스투어 투 코리아'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의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저렴한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지만 한방 위주로 진행되어 선정된 업체 중 많은 업체가 큰 실적을 내지 못했고 결국 2003년까지 운영되다가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이다.

[표 8] 보양관광 사업 자원현황

구분	개소	시설/축제명칭
관람자원	4	구암(허준)공원, 개심터, 대구약령시 전시관, 금산 인삼전시관
한방상품 제공시설	4	경동약령시, 대구약령시, 전주약령시, 금산약령시
박람회·축제	7	서울약령시의 날, 대구약령시 축제, 전주약령시제전, 금산 인삼제, 풍기인삼축제, 한의학국제박람회, 대구국제한의학박람회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하지만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한의학과 수지침 등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지침의 경우, 매달 100~2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수지침을 배우거나 진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관광공사는 인터넷, 안내책자를 통해 수지침 관광을 홍보하고 있다. 일본인 대상의 3박 4일 수지침관광과 서구인 대상의 13박 14일 한국문화체험과 수지침 등의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을 찾아 한방, 수지침 진료를 받았다. 정부에서도 헬스/메디칼 투어리즘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건관광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치료뿐만 아니라 미용성형이나 보건휴양 등 다양화되고 확대 실시되는 상황에 있다. 최근 한류 붐을 타고 한국인의 생김새가 아시아 지역의 미의 표준이 되고 있으며, 한국의 미를 따라가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각지에서 한국 배우들의 외모를 흉내 내려는 성형수술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한국의 성형수술이 아시아의 얼굴을 바꾼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화상품 수출을 통해 한국적 미인이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면서 아시아의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이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서울로 몰려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관광과 건강을 접목하는 보건관광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다 볼 수 있고 외국의 사례와 같이 특유의 브랜드화 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국내의 보양관광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은, 우선, 보양관광의 성행하고 있는 외국과는 달리 특별하게 두드러진 아이템을 찾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보양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를 보면, 스파(온천 포함), 한방치료, 성형수술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지엽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는 분야가 존재하지만 보양관광이라는 큰 틀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아이템으로서 자리잡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다.

국내 보양관광을 이용하려는 외국의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외국에서는 우리의 한의학을 중의학과 동일시하거나 중의학 내의 한 분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우수한 한의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방의료의 임상적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간과된 부분이 있다. 한의학의 국제화·세계화를 위한 홍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과대광고 금지 조항은 내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한방·양방간의 협력이 어렵고 이러한 요인들이 보건관광사업의 성공적인 전개를 방해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국내온천 사례

4.1 아산온천지역 일반현황

아산온천지역은 온양온천지구, 도고온천지구, 아산온천지구 등 3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려왔고 현재 침체기를 맡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내 제 1의 온천관광지로서 명성을 누리고 있다. 아산지역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휴양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는 주로 온천자원에 의한 휴양지였지만, 해방 이후 현충사를 필두로 많은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들과 연계 관광으로 휴양도시의 기능과 문화관광도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산시는 서울 118.5km, 대전 84.4km, 천안 14.7km의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30분 거리로 수도권과의 교통이 편리해짐으로서 1일 온천관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충청남도 중서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아산을 중심으로 한 온천지구의 도고, 보령, 예산 등 인근지역으로의 연계관광이 용이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유구한 역사와 양호한 관광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산온천지역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온천관광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책추진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과감한 관광기반시설의 투자가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현대화된 숙박시설, 주차장, 대형식당, 쇼핑공간 부족으로 온천 이외의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없는 열악한 경쟁력이 없는 단순 온천욕 중심의 경유형 관광지의 이미지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아산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온천욕과 더불어 온천이벤트 상품과 주변 문화관광 연계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관광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노후화, 전문인력 부족, 서비스 미흡, 이용객 감소, 경영수지 악화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넷째, 아산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협의체와 온천자원의 보호·관리를 전담할 자치단체의 온천관리 전담기구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아산 관광자원 현황

구분	지원명	특 징
자연자원	강당골 유원지	수려한 주변환경, 가족휴식처
	신정호 유원지	뱃놀이, 토속음식점, 오락시설
	삽교호 아산만 방조제	청일전쟁 격전지로 방조제에 의한 인공호
	온천지역	온양, 도고, 아산지역 온천욕 관련시설
문화재	외암마을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제2호
	온양민속박물관	방대한 민속자료 소장
유적지	현충사	이충무공 사당(숙종건립, 1706)(사적 115호)
	맹씨행단	맹사성의 옛집(사적 109호)
	신정비	성종 7년 신천이 솟은 상성의 발로로 비건립 (문화제자료 229호)
	수덕사	백제 법왕 1년 지장법사가 창건한 명찰로 대웅전은 무왕 1년 건립(국보 제49호)
	이충무공묘소	묘 1기, 상석 1기, 당명 1쌍, 석상 1쌍

자료 : 아산시, [업무보고자료], 1999

4.2 아산지역 온천

4.2.1 온양온천

온양온천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백제, 통일 신라시대를 거쳐 그 역사가 근 1300년이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온수군(溫水郡)으로 불리었던 것으로 보아 실제 온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기간은 600여년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 15년(1433년) 정월에 안질치료차 행차한 후, 세조, 현종, 숙종, 명종, 영조, 정조 등 여러 임금께서 온궁을 짓고 휴양이나 병의 치료차 머물고 돌아간 다수의 기록과 유적들이 남아있으며, 또한 현종, 숙종, 명종때에는 온천에 암행하여 과거를 보게하여 인재를 발굴하였던 기록이 남아 있다. 일제 때에는 온양온천주식회사가 독점 온천장을 경영하고 1927년 이후는 경남 철도주식회사가 경영하던 신정관과 일본인 소유의 탕정관 등 2개소 뿐이었던 것이 1963년 신천개발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38개 공의 온천공이 온양온천 중심부에 걸쳐있다.

온양온천은 지질이 단상흑운모, 각섬석 화강암으로 되어있으며 용출되는 온천수의 수온이 58℃ 내외로 고온온천이다. 온천수의 주요성분은 마니타온을 함유한 리듐온

천이며 약알칼리성으로 수질이 좋고 수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상가, 음식점, 유흥업소, 온천장 등 주변시설이 잘 발달되어서 비록 침체기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온천 지역 최대의 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피부미용, 혈관강화증, 신경통, 부인병, 위장병, 빈혈 등에 특효가 있으며, 현재 온양관광호텔, 그랜드호텔, 온양팔래스호텔, 인터파크관광호텔, 뉴코리아관광호텔, 청주탕, 현대탕, 삼보천탕, 신정관온천탕, 용문대중탕, 옥수탕, 신천탕, 정수온천탕 등의 온천장이 운영되고 있다.

4.2.2 도고온천

도고온천은 온양에서 서쪽으로 15km 지점에 위치하며 신라시대부터 약수로 이름난 곳이므로 200여 년 전부터 온천으로 개발되었다. 그 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이 개발, 사용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온천은 수온이 25도를 유지하는 냉광천으로 주로 물을 가열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은 단순 유황천으로 동양 4대 유황온천 중의 하나이다. 피부나 응용을 통해 이온상태로 체내에 흡수되어 인체의 생리작용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므로 신경통, 피부병, 위장병, 관절염, 류마티즘, 부인병, 당뇨병, 생식기 질환, 소화기 질환, 피부미용에 특효가 있다. 성분은 주로 수소이온농도가 8.7%에 이르면서 그 밖에 고형잔유물, 규산,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성분으로 되어 있다.

파라다이스호텔, 도고온천탕, 한국콘도한증탕, 로얄파크목욕탕, 토비스목욕탕, 도고글로리온천사우나탕 등 호텔 2개를 비롯하여 콘도 3개와 다수의 여관이 있으며 대중탕, 사우나탕, 유수풀장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있다. 특히 도고골프장을 비롯하여 승마장, 수영장 등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주변에 성준경 가옥, 옹기마을, 도고산, 도고저수지, 화합의 마을 등 볼거리가 많은 온천휴양지이다.

4.2.3 아산온천

아산온천은 1987년에 발견되어 1991년에 관광지로 지정되었다. 중수산나트륨을 포함한 알카리성 온천으로 20여종의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울창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삼림욕까지 겸할 수 있는 다용도의 온천이다.

국내최초의 건강보양 테마온천 시설은 스파이스는 국내최대 규모로서 3,000여명을 동시수용할 수 있는 대욕장 및 수영장, 한방클리닉 등의 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관광지내 주요시설로는 1,500여명이 동시수용 가능한 아산온천탕, 일반호텔 2개, 여관 20여개 등의 시설이 개장되어 있으며 계속적으로 관광호텔, 콘도, 편의시설 등이 시공 또는 계획 중에 있다.

[표 10] 아산시 온천자원 현황

구분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
역사성		· 백제(AD18)가 탕정 성을 쌓았다는 동사 강목을 비롯 14개 문헌에 30회의 온천 관련 기록이 있으며 · 온궁(溫宮)이 있었고 조선왕조 6대임금이 요양	· 신라시대부터 약수터로 알려졌다고 하나 고문헌 기록이 없음 · 1921년에 발견된 유황온천	· 1988. 10 온천발견
온천지구	지정일	1981.09.22	1981.09.22	1989.11.14
	면적	532,000㎡	694,825㎡	1,209,074㎡
온천수	온도	42℃~59℃	25℃~32℃	29℃~35℃
	성분	알칼리성 라듐온천	약알카리성 유황화수소천	중탄산나트륨 게르마늄 함유 알카리성 온천
	부존량	960만톤	700만톤	750만톤
	채수 가능	5,808톤/일	3,287톤/일	6,400톤/일
이용효과		피부질환, 신경통, 류마티스성 질환, 근육통, 위장병	피부병, 관절염, 금속 중독, 당뇨병, 동맥 경화증, 변비, 만성 기관지염, 간질환	세포재생촉진, 위산 과다, 담석증, 통풍, 피부미용

자료 : 아산시 문화관광과, 2000. 12

5. 보양온천을 활용한 보건관광 특성화 전략

보건관광이 단순한 보신관광이 아닌 보건관광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양질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해외홍보마케팅도 활발히 이루어져야하며 무엇보다도 국가차원의 정책,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형 보건관광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보양온천을 활용한 보건관광의 특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개념의 보양온천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온천을 보면, 보양온천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여 상업시설, 휴양시설, 공공시설, 온천자원의 관리, 관광진흥기구, 사업예산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00년의 온천역사와 600년의 온양온천 온궁의 역사는 타 온천지에 비해 충분한 차별화를 보이고 있으며 표. 10의 풍부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온천관광시설의 현대화 노력과 과감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공편익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오래되고 시설환경이 열악한 전통적인 온천 관광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고유의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건강을 테마로 하는 특성화된 보양온천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기관은 물론, 협회, 상공회, 여관조합,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천을 소비하는 관광객의 기본 특성이나 지역사회 현실을 고려한 특성화 개발이어야 할 것이다. 관광객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화, 숙박시설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휴식과 관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시설 보완, 그리고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등이 필요하다.

보양온천으로서의 아산온천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보양온천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관광객의 방문과 숙박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시도해야 한다. 우선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숙박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안내, 요금관계, 교통 등 기본 사항들을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고 편하게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체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지역내 명소, 신사, 사찰 등을 연결하는 체계적 관광코스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관광코스는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이용자에 따라서는 다소 지루하고 불편한 점이 많다. 따라서 국·내외 관광객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관광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관광루트를 개발한다거나 인근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를 통한 관광가이드 활동 같은 조직적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셋째, 보양온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건강관리 지도사나 전문의 등과 같은 자격증을 구비한 전문스텝을 상주시켜 건강체크와 자문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투숙객 전용 셔틀버스 운행과 함께 요양과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장기간 숙박하는 관광객은 숙박료를 저렴하게 해주거나 주변 관광지를 대상으로 투어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보양온천과 비슷한 아이템으로 보건관광 선진화를 이루고 있는 태국이나 싱가폴의 시스템을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온천을 이용한 건강관리를 테마로 하는 차별화된 건강지향 프로그램 개발, 설비 강화 등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고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 소형 온천장과 같은 경우는 단골 방문객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온천 치료의 분위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특성화시켜서 대형 사업장과는 다른 느낌으로 관광객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런 숙박시설간 전략 차이는 관광객들에게 있어 선택의 폭을 더욱 넓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아산온천 지역도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책과 방법들을 연구해야 한다. 온양온천행궁 재현과 국제화된 온천관광 메뉴, 온궁목욕법 등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온천관광상품을 개발·제공함은 물론, 아산지역 3대 온천지의 특성이 고려된 권역별 관광특화사업을 추진하여 타지역과 차별화해야 한다. 오랜 역사와 유구한 전통을 지닌 아산온천지역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문화적 전통과 보양기능을 강화한 특성화된 온천으로서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의지와 긍정적인 시대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건관광산업은 OECD 국가는 물론 싱가폴,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단계에 있다. 본격적인 보건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관광업계가 합심하여 제도개선 및 입체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보양온천을 이용한 보건관광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이용하여 침체되어가는 지역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6. 결론

오늘날 관광문화는 관광의 목적과 동기가 다양화·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온천·문화·자연, 그리고 건강'을 테마로 하는 보양온천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온천은 요양을 주로 한 보건관광 기능을 중심으로 특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산온천지역의 관광자원을 자연관광과 인문관광으로 구분할 때, 이 두가지 요소를 갖춘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연관광 자원 중 온천은 1900년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곳으로 온천자원과 더불어 현충사, 외암리 민속마을, 온양민속박물관 등 문화관광 자원도 풍부하여 국내 최대 관광 소비 시장인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과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주·부여의 백제문화관광권, 서천·보령·태안·서산·당진의 해안관광권, 대전·청주·보은·옥천 지방의 내륙관광권과 연계성이 양호한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6].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온천궁궐이

있던 온양온천과 도고온천, 최근 대형 스파시설이 들어선 알카리성 중탄산 나트륨형 천질의 아산온천 등 각기 다른 천질을 가진 전국 최다 온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의 보양온천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되어 산업화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의 다양한 추구편익을 고려한 시설 투자 및 서비스를 행해야 한다. 현재의 관광객들은 단지 휴식만을 목적으로 관광지를 방문하지 않으며 자연을 만끽하며 건강과 미용, 오락을 추구 하는 등 다양한 편익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역 서비스, 표지판 부착 등을 통해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에 각 지역의 개발담당자 및 운영자는 이에 따른 시설 투자 및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양온천의 방문자 다수는 건강증진과 더불어 유흥과 오락 및 쇼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고자 하는 건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형의 관광객들이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이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양온천은 사양길에 접어 든 온천을 부활시킬 그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업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 같은 수요를 수용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 온천을 대상으로 한 보양온천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최근 보양온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지면서 보양온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념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많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보양온천에 대한 관심은 사향화 되어가는 온천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대안으로써의 개발에만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여 해외사장에 대한 연구를 수반해서 우리나라의 보양온천의 해외시장의 잠재성, 개발방향, 마케팅 전략, 시장 분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더욱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고,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관광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이명수, 아산지역(온양·도고·아산)온천 온천활성화 방안 및 추진내용, 정책방향 제안, 2008,

[2] 김인순, 보양온천을 중심으로 한 수치료시설의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3] Bader-und Kurverwaltung(1984) : Fremdenverkehrs Statistik Badenbaden. Kalenerjahr, 1983, p. 30.

[4] 한영준, 목욕도 관광상품이다, 집사재, 1999. pp. 83-87

[5] 김정은, 손대현, Health Tourism 이용자의 추구편익 분석, 2000

[6] 최운현, 아산지역 온천관광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110.

이 주 일(Ju-Il Lee) [정회원]

- 2004년 2월 : 호서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
- 2006년 3월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컴퓨터응용기술학과 (공학석사)
- 2008년 3월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 2001년 ~ 현재 :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충남지부 운영위원장
- 2003년 ~ 현재 : 충남DPI(충남장애인연맹) 운영위원

<관심분야>
정보경영(보양온천 분야)

양 해 술(Hae-Sool Yang) [정회원]

- 1975년 2월 :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졸업(학사)
- 1978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정보처리학과졸업(석사)
- 1991년 : 일본 오사카대학교 정보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 전공 (공학박사
- 1975년 ~ 79년 : 육군중앙경리단 전산장교
- 1980년 ~ 95년 : 강원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전임강사
- 1994년 ~ 95년 : 한국정보처리학회 총무이사, 논문편집위원장
- 1995년 ~ 02년 : 한국S/W품질연구 소장
- 2001년 ~ 현재 : 한국정보처리학회 부회장
- 1999년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소프트웨어공학(특히, S/W품질보증과 평가, 품질감리와 컨설팅, OOA/OOD/OO[, CASE, SI), 프로젝트관리, CBD 기반기술, IT품질경영